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180

2008 년 2 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 WH-구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아 름

영어 WH-구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glish WH-Constructions

2008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아 름

영어 WH-구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아 름

이아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1

Ⅱ. WH-Question 구문 2

A. WH-Question 구문의 특징 2

1. 통사론적 특징 2

a. 하위범주화 논증 2

b. 공백 논증 3

2. 형태론적 특징 4

a. 일치 논증 4

b. 격표시 논증 5

3. 의미론적 특징 6

a. 재귀대명사 해석 6

b. 선택 제약 6

4. 음운론적 특징 7

a. 조동사 축약 7

b. wanna 축약 8

B. 요약 9

Ⅲ. WH-Relative 구문 10

A.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10

1. 형태론적 차이 10

2. 의미론적 차이 13

3. 통사론적 차이 16

B. 변형문법에서의 심층구조 분석과 변형.....18
1. 심층구조 분석.....18
2. 관계절화 변형.....28
C. 요약.....32

Ⅳ. WH-Cleft 구문.....34
A. WH-cleft 구문의 특징.....35
B. 종류.....37
C. 구조적 속성.....38
1. 일치 효과.....38
2. 추출 제약.....39
3.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40
D. 화용적 의미 속성.....40
E. 요약.....42

Ⅴ. 결론.....43

REFERENCES.....45

ABSTRACT

A Study on English WH-Constructions

A-Reum Lee
Advisor : Prof. Nam-Geun Lee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English, numerous sentences are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n every English structure, certain rules and restrictions exist. One of the English construction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uch rules and restrictions is WH-construc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n WH-constructions. That is, I analyze and make a statement on WH-Question, WH-Relative, and WH-Cleft.

First, I study on WH-Question. I explore the properties in the syntactic, morphological, semantic, and phonological aspects. In syntactic aspect, WH-Question is related to the subcategorization and the gap argument. In morphological aspect, it is related to the agreement argument and the case marking argument. In semantic aspect, it is connec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reflexive pronoun and the selectional restriction. Also, in the phonological aspect, it is associated with the auxiliary contraction and wanna contraction.

Second, I describe two kinds of WH-relative,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in English. Relative clauses are thought to be the most prominent phenomenon among those embedded structures which add precision to be the meaning of sentences. I explore differences between restrictive clauses and non-restrictive clauses in the morphological, semantic,

and syntactic aspects. Also, I analyze their deep structures and examine their transformation process of two kinds of the relative clauses.

Finally, I research WH-Cleft sentence, particularly, what-cleft phrase. English cleft construction is one of the constructions that have structural properties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mselves. At first, I observe the general properties of English WH-Cleft construction. I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WH-Cleft, that is, specificational and predicational ones in the structural and pragmatic properties. Among the structural properties, there are agreement effects, extraction restrictions, etc. Also, I describ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WH-Clefts through two pragmatic properties, namely, information structure and exhaustivity.

Ⅰ. 서　　론

의사전달의 수단인 언어에는 수많은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일정한 문법적 규칙과 제약들이 있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삼는 오늘날의 영어교육에서 대화나 문장 속의 WH-요소(WH-Element)가 지니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WH-구문(WH-Constructions)에 관한 연구를 논문의 주제로 정하였다.

본 논문은 영어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WH-구문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WH-의문문(WH-Question), WH-관계절문(WH-Relative), 그리고 WH-분열구문(WH-Cleft) 즉, 의사분열구문에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기본 구조에서 어떠한 변형 과정을 겪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WH-구문 중의 하나인 WH-의문문에 대해 살펴본다. WH-의문문의 특징을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음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Ⅲ장에서는 WH-관계절문을 다룬다. 한국어에는 영어의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절의 두 유형인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점을 형태적, 의미적, 통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변형생성문법의 측면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심층 구조 분석과 변형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Ⅳ장에서는 WH-분열구문 즉, 의사분열구문에 대한 것으로 이 영어 분열구문은 하나의 독립된 구문으로 자신의 구조 속성과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WH-분열구분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종류, 구조적 속성 및 화용적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Ⅴ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WH-구문들을 요약 정리해가며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Ⅱ. WH-Question 구문

A. WH-Question 구문의 특징

WH-의문문의 특징을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통사론적 특징

WH-의문문은 통사적인 면에서 하위 범주화(subcategorization)와 공백 논증(gap argument)과 관련이 있다.

a. 하위범주화 논증

put 라는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동사 *put* 는 후행 명사구 보어와 후행 전치사구 보어를 모두 요구하는 하위범주화 되는 동사이며, 전치사구 보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구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put* 의 어휘 내항은 put : [___ NP PP]라고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1) a. Your father will put the car in the garage.
b. *Your father will put the car.
c. *Your father will put in the garage.

(1)에서 (1a)는 정문이나 (1b)와 (1c)는 비문임을 *put* 에 대한 하위범주화에 비추어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 Radford(1981: 154)가 제시한 예문을 살펴보자

(2)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___ in the garage?

(2)에서 *put* 다음에는 전치사구만 오기에 비문으로 예측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에서 WH-구문이 하위범주화 목적에 대하여 그것이 문장의 첫머리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마치 실제로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여겨진다.

(3) a. Your father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

↓ WH- 이동 규칙

b.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___ in the garage?

(2)의 D-구조[1]인 (3a)에서 WH-이동 규칙이라는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which car*가 원래의 '___' 위치에서 문장의 첫머리로 이동한 것이기에 (2)는 정문이다.

b. 공백 논증

WH-구가 이동한 자리는 빈 NP 자리로, 이 자리를 '공백'이라고 한다. 어떤 요소가 문두로 이동할 때 원래 공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4) a.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_____ in the garage?

b. D-structure : Your father will put [NP which car][PP in the garage].

c.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u>the car</u> in the garage?

d. *D-structure : Your father will put [NP which car][NP the car][PP in the garage].

(4a)의 공백에 외현적 NP 인 *the car* 를 삽입한 (4c)와 그 기저구조인 (4d)는 비문이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put* 의 하위범주화 틀인 [V NP PP]를 위반하고 [V NP NP PP]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D-구조를 입력 자료로 하여 그것을 변형시켜 S-구조를 이끌어 냄.

2. 형태론적 특징

일치 논증(agreement argument)과 격표시 논증(case marking argument)을 통해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a. 일치 논증

인칭(person), 성(gender), 수(number) 자질의 복합체인 일치소(agreement : AGR)는 시제와 함께 굴절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일치란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일치로, 영어에서 모든 문장의 동사는 그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와 인칭, 성, 수 면에서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WH-이동에 의해 도출된 WH-구문이 인칭과 수에 있어서 동사와 일치하면 정문, 그렇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5) a. Which man might he say [S'___[I doesn't/*don't] like Betty]?
b. Which men might he say [S'___[I don't/*doesn't] like Betty]?

(6) a. He might say [S' which man [I doesn't/*don't] like Betty].
b. He might say [S' which men [I don't/*doesn't] like Betty].

(5a)와 (5b)의 기저구조 (6a)와 (6b)를 보자. (6a)에서 WH-구문인 *which man*은 단수로 *doesn't*와 일치하고, (6b)에서 *which men*은 복수로서 *don't*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I 속의 조동사가 WH-이동 규칙의 적용 이전에 바로 왼편의 NP 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Radford(1988)는 이를 "한정적 I 와 자매 관계에 있는 주격 NP 는 인칭과 수에 있어서 I 와 일치해야 한다(An NP which is the sister of a finite INFL must agree with INFL in Person and Number)"[2]고 보고 있다.

---

[2] Andrew Radford(1988), *op cit.*, p. 473

b. 격표시 논증

Chomsky(1980)는 “I 와 자매 관계에 있는 NP 에 주격이 배정되고, 타동사나 전치사 바로 다음에 오는 NP 에 목적격이 배당된다”[3] 고 격배정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정절(finite clause)의 주어에는 주격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타동사의 보충어인 소절(small clause)[4]이나 예외절(exceptional clause)[5]의 의미상의 주어에는 목적격이 부여된다. 모든 명사 NP 는 반드시 추상적인 격(case)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격을 지니지 못한 명사가 어떤 문장 내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7) a. Who/*Whom are [you sure ___ would admire Martin Luther King, Jr.]?
b. Who/Whom are [you sure Susan would admire ___]?

(8) a. You are sure [who/*whom would admire Martin Luther King, Jr.].
b. You are sure [Susan would admire who/whom].

(8a)에서 WH-대명사는 주어 자리에서 주어가 이동해 나왔기 때문에 주격 *who*를 배당 받고, (8b)에서는 그 대명사가 타동사 *admire*의 보어임에 의해 목적격 *whom*을 부여 받는다. WH-요소가 WH-이동에 의해 전치될 때 문어체의 경우 목적격으로 *whom* 만 인정하나, 구어체에서는 *who* 도 인정하므로, (8b)에서는 주격인 *who*와 목적격인 *whom*이 모두 허용된다. 따라서 WH-이동 규칙의 적용 이전에 대명사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정보를 알면 ‘격표시’에 의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3] Noam Chomsky(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p. 25

[4] e.g. I believe <u>him honest</u>.

[5] e.g. I want <u>him to go there</u>.

3. 의미론적 특징

의미론적인 특징인 재귀대명사 해석(interpretation of reflexive pronoun)과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살펴보자.

a. 재귀대명사 해석

재귀대명사 해석은 재귀대명사 규칙에 따라 재귀대명사가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표현과 연결되어 해석되는지를 결정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9) Which witness did you say you thought [s ___ perjured himself]?

Radford(1981: 165)는 재귀대명사는 IP 내에서 자신과 동일한 성.수.인칭이 같은 선행사인 명사구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9)에서 재귀대명사 *himself*는 WH-NP[which witness]와 연관되어 해석되지만, 위의 조건에는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which witness* 가 *say* 절의 맨 앞에 위치하는 반면 *himself* 는 *perjured* 절 안에 위치하여 같은 절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which witness* 가 D-구조에서 원래 '___'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WH-이동 규칙에 의해 문두로 이동한 형태이므로 *himself*가 *which witness*와 연관 해석되는 데 원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b. 선택제약

'선택제약'이란 일정한 범주 안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선택에 가해지는 제약으로, 서술어의 의미적, 그리고 의미역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와 동일한 문장이나 구 안에 나타날 때 문법적인 이탈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Chomsky (1965:

95)는 이것을 공기발생의 제약(restriction of co-occurrence)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10) Tom is eating a big hamburger/*a big mirror.

eat 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a big hamburger* 는 취하나, *a big mirror* 는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도 적용된다.

(11) a. He might think Tom is eating which hamburger/*which mirror.
b. Which hamburger/*Which mirror might he think Tom is eating ___?

eat 의 목적어로 올 수 있는 것은 의미적으로 *a big hamburger* 이지, *a big mirror* 가 아니다. (11b)의 *which hamburger* 와 *which mirror* 가 '___' 부분에 있었다고 한다면, (11a)와 (11b)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저구조를 갖고, 또한 선택제약이 문장의 기저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11a)와 (11b)가 동일한 선택제약에 의해 설명이 될 수 있다.

4. 음운론적 특징

음운론적 특징인 조동사 축약(auxiliary contraction)과 wanna 축약(wanna contraction)을 살펴보려고 한다.

a. 조동사 축약

어떤 특정 상황에서 조동사나 be 동사는 축약이 되나, 조동사나 be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요소가 이동이 되어 그 공백에 흔적을 남기면 축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흔적이 축약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12) a. *Do you wonder which wine Tom'll ∅ drink?

b. Do you wonder which wine Tom will ∅ drink?

(12a)와 (12b)를 비교해 보면, WH-NP 인 *which wine* 이 조동사 *will* 뒤에서 WH-이동에 의해 문두로 나갔으나, 원래 자리에 흔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축약이 된 (12a)는 비문이 되나, (12b)는 정문이 된다. 따라서, "축약형은 바로 뒤에 잃어버린(missing) 성분이 있을 때에는 쓰일 수 없다"는 규칙을 제안할 수 있다.

b. wanna 축약

want to 가 구어체에서 **wanna** 로 축약되는 현상을 **wanna** 축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13) ① **want** 와 **to** 가 인접하고 있다.

② **want** 와 **to** 사이에 흔적이 없다.

③ **want** 가 **to** 를 지배한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겠다.

(14) a. Who do you want to come here ___?

b. Who do you wanna come here?

(15) a. Who do you want ___ to sing?

b. *Who do you wanna sing?

(14)와 (15)를 살펴보면, 두 문장은 *who* 가 각각 '___' 위치에서 WH-이동규칙에 의해 문두로 이동하였다. (14a)에서는 *want* 와 *to* 사이에 공백이 없는 반면,

(15a)에서는 *want* 와 *to* 사이에 '___'이라는 공백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15)는 (14)와 같은 **wanna** 축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15a)에서는 *who* 가 *want* 와 *to*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who* 가 축약을 방해하여 **wanna** 축약을 한 (15b)는 비문임을 알 수 있다.

B. 요약

본 장에서는 WH-의문문의 특징을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WH-의문문은 통사적인 면에서 하위 범주화와 공백 논증과 관련이 있었다. 하위 범주화란 한 범주에 속하는 어휘라 할지라도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서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통사적인 특징인 공백 논증을 다루어 보았다. '공백'이란 WH-구가 WH-이동에 의해 문두로 이동되는 경우 그 요소가 이동한 자리인 빈 NP 자리를 뜻한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이동에 의해 문두로 나가는 경우 원래 공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형태론적 특징 중 일치 논증은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WH-구문이 동사와 일치하면 정문, 그렇지 않으면 비문임을 알 수 있었다. 격표시 논증에 의해, I 와 자매 관계에 있는 NP 에 주격 이, 타동사나 전치사 바로 다음에 오는 NP 에 목적격이 배당됨을 알 수 있었다. 의미론적 특징으로는 재귀대명사 해석과 선택 제약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재귀대명사 해석은 재귀대명사 규칙에 의해 재귀대명사는 IP 내에서 자신과 동일 한 성, 수, 인칭이 같은 선행사인 명사구로 해석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택 제약에 의해, 일정한 범주 안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제약을 다루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는 조동사 축약과 **wanna** 축약이 있었다. 조동사 축약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조동사나 be 동사는 축약이 되나, 조동사나 be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요소가 이동이 되어 그 공백에 흔적을 남기면 축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wanna** 축약 마찬가지로, **want** 와 **to** 가 인접하고 있고, 그 사이에 흔적이 없으며, **want** 가 **to** 를 지배할 경우에 **want to** 가 **wanna** 로 축약됨을 살펴보았다.

Ⅲ. WH-Relative 구문

A.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영어의 관계절은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나뉜다. 영어의 관계절은 선행사인 머리명사구(head NP)와 이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를 제한적 관계절, 후자를 비제한적 관계절이라 한다.

두 관계절의 차이점은 크게 형태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통사론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형태적인 면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은 구어에서는 휴지의 유무, 문어에서는 콤마의 유무에 의해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의미적인 면에서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의 지시대상을 한정하여 주절에 대해 의존적인 의미를 전달하지만,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의 지시대상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주절의 의미와 독립적이다. 그리고 통사적인 면에서 제한적 관계절은 주절에 대해 종속적인 기능을 하는 종속절인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주절과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등위절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1. 형태론적 차이

Curme(1931: 224)은 관계절이 선행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를 제한적 용법, 그리고 선행사를 보충 부가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를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형태적 차이는 선행사와 관계절 사이에 놓이는 콤마의 유무로, 콤마는 구어에서는 휴지로 알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16) a. The soldiers who were brave ran forward.

b. The soldiers, who were brave, ran forward.

(16a)에서는 선행사 *the soldiers* 와 관계절 사이에 콤마가 없는 반면, (16b)에서는 관계절 전후에 콤마가 삽입되어 있다. 구어에서는 (16a)의 경우 *the soldiers who were brave* 다음에 휴지가 오고, (16b)의 경우에는 *who were brave* 전후에 휴지가 온다. (16a)처럼 휴지나 콤마를 동반하지 않는 관계절을 제한적 관계절이라하고 (16b)처럼 휴지나 콤마가 동반되는 관계 절을 비제한적 관계절이라 한다. 제한적 관계절은 그것이 대단히 긴 것이 아니라면 선행사와 하나의 음조군(tone group)을 이루는 반면에,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와 독립된 음조군으로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제한적 관계절 과 비제한적 관계절은 발화 시 음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16a)와 같은 제한적 관계절에서는 선행사보다 관계대명사를 낮은 음조로 발음하고 관계절까 지를 발화한 후 휴지를 두지만, 비제한적 관계절의 발화시 선행사를 발화한 후 휴지를 두고 같은 음조로 관계절을 발화하고 또 다시 휴지를 둔다는 것이다.

관계절은 관계대명사의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zero 형을 포함한 모든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 that 과 zero 형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을 보자.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		제한적 용법
	사람	사물	사람과 사물
주격	who	which	That
목적격	whom		that, zero
소유격	whose	of which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 whom	전치사 + which	
관계대명사+ 전치사	whom...전치사	which...전치사	that...전치사 zero...전치사

<표 1>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따른 분류

Quirk(1972)의 분류에 의하면, <표 1>에서처럼 WH-관계사 **who, whom, whose, which**, 그리고 **zero 형**은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계대명사 **that**과 **zero 형**은 제한적 용법에만 쓰일 수 있다.

또한, 제한적 관계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반면에 비제한적 관계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Stageberg(1971: 25)는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7) a. 관계대명사 **that**은 항상 제한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

b. 관계대명사가 없는 **zero 형** 관계절은 제한적이다.

c. **who, whom, which**를 **that**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절은 제한적이다.

d.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가 생략될 수 있는 관계절은 제한적이다.

e. 지명과 인명 뒤의 관계절은 비제한적이다.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의 한정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Smith(1969)는 한정사의 분류와 관계절의 유형별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했는데, 이 주장의 핵심은 '한정성의 정도(scale of definiteness)'이다. 한정사는 **each, any, every, all** 과 같이 한정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불특정 한정사(unspecified determiner), **a(n), the** 와 같은 특정 한정사(specified determiner), 그리고 고유명사나 **a(n)**이나 **the** 와 같은 관사를 두지 않는 한정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유일 한정사(unique determiner)로 분류된다. 불특정 한정사가 포함된 선행사는 제한적 관계절만, 유일 한정사가 포함된 선행사는 비제한적 관계절만 동반할 수 있으며, 특정 한정사가 포함된 선행사는 제한적, 비제한적 관계절 모두 다 공기(co-occur) 가능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18) a. All the students who are in this class will pass the test.

b. Any book which is about science is interesting.

c. *All the students, who had failed the test, wanted to try again.

d. *Any book, which is about science, is interesting.

e. The cat that is black caught the mouse.

f. The cat, which is black, caught the mouse.

g. Jim, who is from the south, hates cold weather.

h. *Jim who is from the south hates cold weather.

불특정 한정사가 포함된 선행사는 제한적 관계절 (18a)와 (18b)만 허용되고, 비제한적 관계절 (18c)와 (18d)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특정 한정사들은 그 자체의 의미가 비한정적이므로 제한적 관계절의 수식을 받아야만 한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한정사는 선행사의 의미가 화자에 따라 한정적 일 수도, 비한정적 일수도 있으므로 (18e)와 (18f)같은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을 다 허용한다. 반면에, *Jim* 과 같은 고유명사는 그 자체에 한정적 의미가 들어있어 수식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18g)와 같은 비제한적 관계절만 허용한다.

2. 의미론적 차이

제한적 관계절은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선행사인 명사구의 핵인 명사를 직접 수식하여 명사의 지시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나,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간접적으로 부가설명해주는 주절과는 독립된 기능을 한다. 이 절에서는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9) a. My typewriter which is in the bedroom doesn't work.

b. My typewriter, which is in the bedroom, doesn't work.

(19a)에서는 '화자가 두 개 이상의 타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침실에 있는 타자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 반면, (19b)에서는 '화자가 단 하나의 타자

기만을 가지고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으며 그것이 침실에 있다'는 뜻이다. 즉, (19a)의 제한적 관계절 *which is in the bedroom*은 선행사 *my typewriter*의 의미를 제한시켜주는 필수 요소지만, (19b)의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 *my typewriter*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19a)와 (19b)를 각각 두 문장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a. A typewriter of mine is in the bedroom.
It doesn't work.
b. My typewriter doesn't work.
It is in the bedroom.

(20a)에서는 관계절에 상응하는 문장이 먼저 오고 주절에 해당되는 문장이 뒤에 오는 반면에, (20b)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이다. 또한 (20a)와 (20b)의 기저구조에 나타나는 외형상의 중요한 차이점은 제한적 관계절의 경우에는 화자의 타자기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 기저표현이 *a typewriter of mine* 처럼 비한정적인데 반해,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에는 *my typewriter* 와 같이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인 머리 명사구의 의미를 제한하는 종속절로 간주할 수 있으나,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주절과 대등한 등위구문의 형태로 결합하여 선행사에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된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제한적 관계절의 탈락은 문장의 의미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또한 제한적 관계절과는 달리 비제한적 관계절은 명제의 진위를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21) a. They interviewed every student who had lent money to the victim.
b. They interviewed Tom, who had lent money to the victim.

(21b)의 비제한적 관계절은 *Tom had lent money to the victim*이라는 명제를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이 명제는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러나 (21a)의

제한적 관계절은 *every student had lent money to the victim*이라는 명제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관계절의 진위를 평가할 수 없다.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또 다른 의미상의 차이는 제한적 관계절이 주절에 대해 하나의 발화행위를 수행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주절과는 독립된 언어행위를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비제한적 관계절은 내기, 약속, 명령, 부인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언표내적 행위[6]를 수행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22) Has Mary, who was here a minute ago, left?

(23) Have you seen the woman who was here a minute ago?

(22)에서 화자는 두 가지의 독립된 언어 행위, 즉 청자에게 *Mary* 가 조금 전에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알려주는 행위를 수행한다. 반면에 (23)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조금 전 이곳에 있었던 여자가 떠났는지를 묻는 하나의 언어행위만 수행하나, 그 여자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알려주는 언표내적 행위는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적 관계절이 포함된 의문문인 경우 그 계절을 사용해 답변을 하면 이상하지 않지만, 비제한적 관계절이 포함된 의문문인 경우 그 관계절을 사용해 답변하면 어색하고 심지어는 무례하기까지 한다. 그 이유는 비제한적 관계절이 주절과 다른 언표내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와 (23)의 관계절을 이용해 각각 답변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6] J.L.Austin 은 인간의 발화행위는 의미 전달을 위해 소리를 내는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 발화 중에 청자에게 하는 약속, 명령, 축하 등과 같은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발화의 결과 이루어지는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 세 행위 중 언표내적 행위를 화행(speech act)의 핵심으로 보았다.

(24) a. Has Mary, who was here a minute ago, left?

b. ??Yes, she has, who was here a minute ago, left.

(25) a. Have you seen the woman who was here a minute ago?

b. Yes, I have seen the woman who was here a minute ago.

3. 통사론적 차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형태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통사적 구조 또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한적 관계절은 주절에 종속되어 주절의 머리명사구의 의미를 제한하는 종속절의 기능을 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주절의 머리명사구의 의미를 부가설명해주며 주절과는 다른 독립절의 기능을 한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통해 제한적 관계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26) a. My sister who lives in Seoul is on vacation.

b. My sister [S My sister lives in Seoul] is on vacation.

Ross(1967)가 제안한 NP-S 분석에 의해 이 문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NP-S 분석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이 절에서는 간략하게 살펴보면, 관계절을 (26b)에서처럼 선행사 NP 에 따르는 S 로 도입하기 때문에 NP-S 분석이라고 한다. 관계절 변형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절과 관계절은 (26b)의 기저구조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존재해야 하고, 심층구조에서 주절에 들어있는 선행사 NP 와 동일지시적 NP 가 관계절 속에도 들어있어야 하며 이것이 관계대명사로 대치되어 표층구조가 형성된다.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에 대해서 동일한 기저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 주절과 대등한 등위접속절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27) a. My sister, who lives in Seoul, is on vacation.

b. My sister is on vacation.

c. My sister lives in Seoul.

(27a)의 심층구조는 (27b)와 (27c)의 두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비제한적 관계절은 주절(S1)과는 독립된 절(S2)로, 심층구조를 등위 접속사 *and* 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28) [S1 My sister is on vacation] and [S2 my sister lives in Seoul].

(28)의 심층구조에서 표층구조인 (26a)를 도출하기 위해서 *and* 와 함께 문장 S2 를 S2 의 NP 인 *my sister* 에 일치하는 문장 S1 의 NP 에 삽입한다. 이 경우 *my sister* 가 동일지시적 명사구가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29) [S1 My sister [S2 and My sister lives in Seoul] is on vacation.]

그 다음, *and* 를 탈락시키고 주격 관계대명사 *who* 를 삽입하면서 내포된 S2 에서 동일지시 명사구를 생략하면 (11a)인 표층구조가 나온다.

또한 Quirk(1972)는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는 명사구 후위수식(noun phrase postmodification)과 복합문에서의 장소와 시간의 부사절과의 경계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which* 를 포함한 전치사구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나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 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30) a. In 1978 Mary came to Korea, [in which city]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

↓

where

b. Mary came in 1978, [at which time] she got married a Korean man.

↓

when

Radford(1981)는 제한적 관계절에서 생략된 선행사가 머리명사구를 가지고 있으면 대용형 *one* 은 머리명사구와 관계절 전체를 대신하나, 비제한적 관계절에서 *one* 은 관계절을 제외한 머리명사구만을 대신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31) a. Tom has two cats that once belonged to Sally and Mary has one, too.

b. Tom has two cats, which once belonged to Sally, and Mary has one, too.

제한적 관계절 (31a)에서는 *Mary* 의 고양이는 전에 *Sally* 의 소유였음을, 비제한적 관계절 (31b)에서는 *Mary* 가 가진 고양이가 *Sally* 의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러한 통사적인 차이는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와 문장 속에서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와는 독립된 성분임을 보여준다.

B. 변형문법에서의 심층구조 분석과 변형

이 절에서는 변형문법 안에서 관계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관계절의 심층구조와 변형과정을 알아보겠다.

1. 심층구조 분석

변형문법학자들간에 관계절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나누는데는 큰 이견이 없으나 심층구조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변형문법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제한적 관계절은 기저내포문에서 비제한적 관계절은 기저 접속문에서 유도되어 나온다는 가설을 채택하여 전개하려고 한다.

a. 제한적 관계절의 심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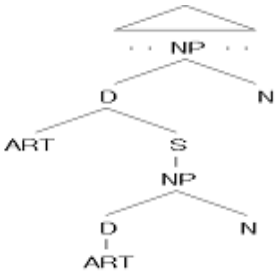
Chomsky(1965: 137-138)는, 결속 관계절의 구조는 심층구조에 있는 두 명사가 동일성조건(condition of identity)을 만족하고 회복가능성 조건 (recoverable condition)하에서 관계화라는 변형과정을 통해 표층구조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Stockwell(1973: 421)에 의하면, 관계절은 명사구의 수식어로 표층구조에 내포된 문장으로, 머리명사구와 동일한 심층구조의 NP 를 WH- 대명사로 대치한 내포문이다. 이를 통해 관계절이 주절에 종속되어 주절의 머리명사구에 대한 지시범위를 제한하는 수식절의 기능을 하고 관계절의 표층구조에 나타나지 않는 NP 가 심층구조에는 존재한다고 본다.

(1) DET-S 분석

ART-S 분석이라고도 하는 이 분석은 1960 년대에 Smith(1964), Chomsky (1965), Katz & Postal(1964) 등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다. 심층구조에서는 관계절이 선행사의 관사와 함께 D(Determiner)라는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었다가 표면구조에서는 관계절이 선행사의 명사 뒤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DET-S 분석의 구절표지(Phrase-marker)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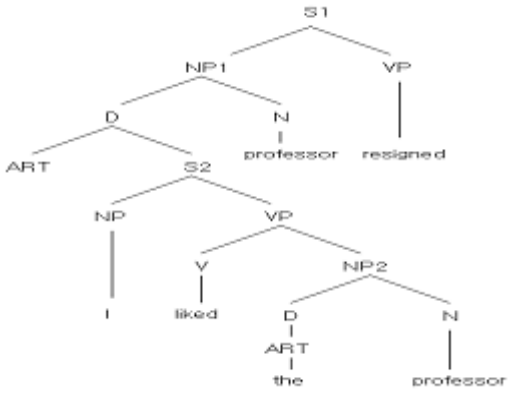
(32)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3) a. The professor whom I liked res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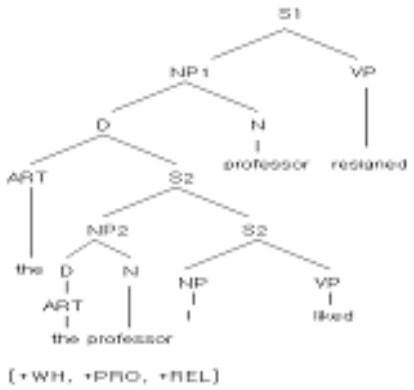
b.



(33a)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가 적용된다. 첫째, 내포절 내의 NP2 가 NP1 과 동일 지시적일 때 내포절 내의 NP2 에 [+WH], [+PRO], [+REL] 등의 자질부착(WH-REL Attachment)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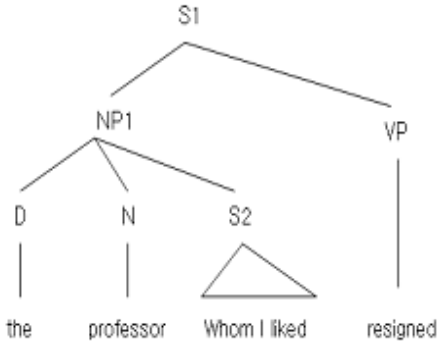
둘째, [+WH] 자질을 가진 매입 NP2 는 (19)에서처럼 매입문 S 의 처음 위치로 이동한다.

(34)



셋째, 관계절이 한정사의 한 구성요소로 생성되므로 관계절은 절 위치 규칙(clause-positioning rule)에 의해 머리명사구의 구성요소로 딸-연접(daughter-adjoined)되어야 한다.

(35)



그 후, 대명사화 규칙(pronominalization rule)을 통해 매입된 NP 는 WH-어로 바뀌고 관계구조도 적절하게 해석되는데, 이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심층구조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관계절이 한정사 속에 포함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Stockwell(1973)은 **kind, way, time, place, manner** 등의 단어가 전치사를 가진 부사구와 함께 나타날 때, 어떤 관사도 명사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36) a. *She finished it in a / the way.

b. She finished it in that way.

c. She finished it in a / the way that I prescribed.

(36a)에서는 *way* 가 전치사와 함께 부사구를 이룰 때 관사가 와서 비문이나, (36b)는 한정사인 지시형용사 *that* 이 왔고, (36c)는 한정사 대신 취할 수 있는 관계절이 나타났기 때문에 (36b)와 (36c)는 정문이다. 그러므로 DET-S 분석의 구절표지에서 N 이 **way, kind** 와 같은 명사일 때 D 가 ART 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한정사와 함께 와야 한다는 제약으로 (36)을 설명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로는, '소유격+명사'의 표현은 그 앞에 정관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유격이 후치되지 않으나, **the** 이외의 다른 한정사가 올 경우 소유격이 반드시 후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37) a. Tom's book

b. That book of Tom's

c. *That Tom's book

d. *Tom's book that is on the 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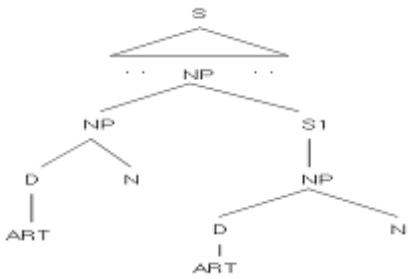
(37a)는 *Tom's book* 앞에 *the* 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문이고, (37b)는 *Tom's* 가 *book* 뒤로 옮겨지고 그 앞에 *that* 이 삽입되어 정문이다. 그러나 (37c)는 *Tom's* 가 수식받을 *book* 뒤로 이동되지 않아서 비문이고, (37d)는 한정사가 소유격 *Tom's* 앞에 없지만 그 뒤에 수식절이 따라와서 한정사 *that Tom's* 앞에 있음에도 비문이 되었다.

그러나, 관계화 규칙은 주절의 어떤 명사구와 관계절의 어떤 명사구가 동일하다는 명사구 동일 조건하에서 성립되는데, 상위 NP 는 D 속에 S 를 반드시 포함하지만 하위 NP 는 그렇지 않기에 DET-S 분석의 심층구조에서는 명사구 동일조건의 설정이 곤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oss(1967)는 NP-S 분석을 제안하였다.

(2) NP-S 분석

이 분석은 관계절이 머리명사구 뒤에 오는 구조로 Ross(1967)가 제안하였고, Jacobs & Rosenbaum(1968), Perlmutter & Soames(1979)가 단순화시켰다. 이 분석법에 따른 관계절의 심층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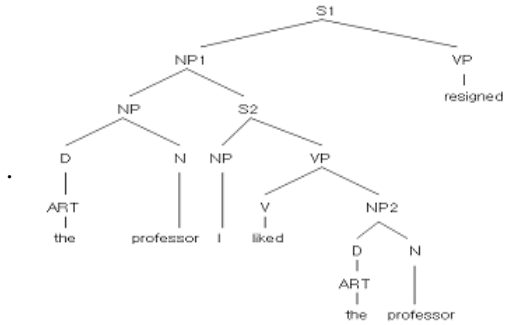
(38)



NP-S 분석은 모문의 머리명사구와 관계절의 NP 가 동일지시적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관계절을 머리 명사구의 수식어로서 내포된 문장으로 본다. 다음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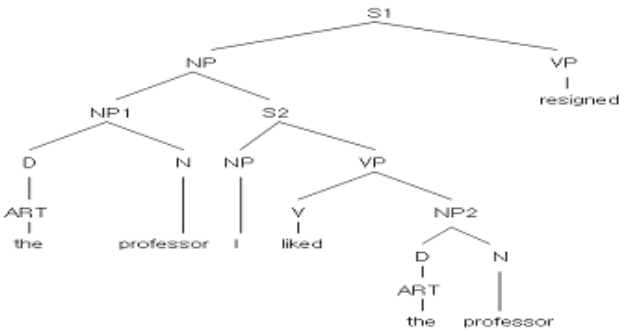
(39) a. The professor whom I liked resigned.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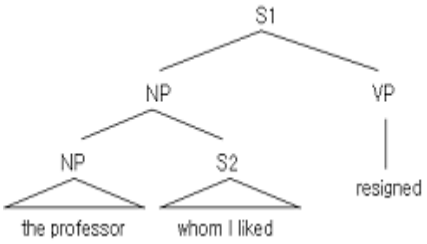
(39a)를 NP-S 분석으로 수형으로 보이면 (39b)와 같다. NP-S 분석에 의해 관계절을 도입하는 데에는 두 단계가 적용된다. 첫째, 모문의 NP1 *the professor* 와 매입 NP2 *the professor* 가 공지시적일 때 [WH-REL] 자질 부착이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0) Wh-Rel Attachment



둘째, [+WH], [+REL] 및 [+PRO] 자질을 받은 매입 NP2 는 WH-전치(WH-Fronting)에 의해 내포문의 첫머리로 이동한 후 대명사화 규칙에 의하여 *whom* 으로 나타난다.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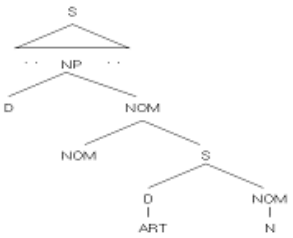


NP-S 분석이 DET-S 분석이나 NOM-S 분석에 비해 동일성 조건이 명백하고 구절표지의 절점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일 지시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양화사(quantifier)와 함께 사용되는 총칭적 NP 에 대해 관계절의 NP 는 총칭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양화사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의 NOM-S 분석이 등장한다.

(3) NOM-S 분석

Stockwell(1973)의 NOM-S 분석에 의하면 NP 에 있는 ART 가 [-DEF], [+SPEC], [-WH]이어야 한다. 즉, 관계대명사는 모두 심층구조에서 비한정성과 특정성을 띤 명사구에서 유도된다는 것으로, 이 분석의 구절표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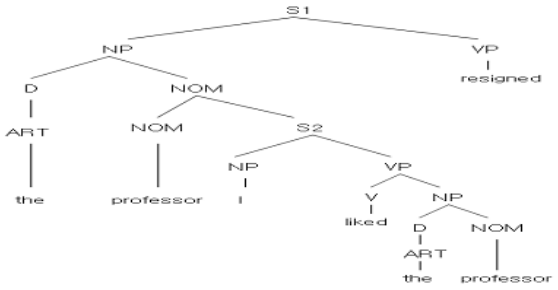
(42)



다음의 예문으로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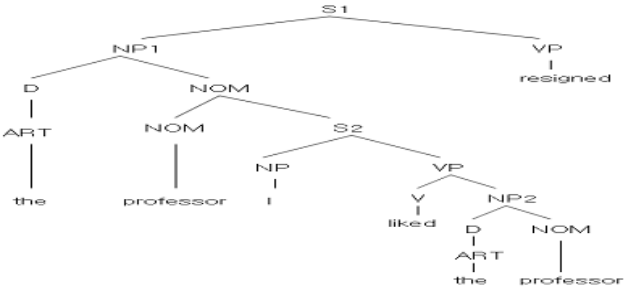
(43) a. The professor whom I liked resigned.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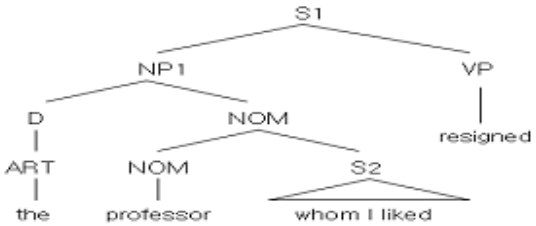
NOM-S 분석에 의해 위의 예문에 적용된 두 단계를 살펴보자. 첫째, 모문 S1 의 NOM *professor* 와 내포문 S2 의 NOM *professor* 가 동일하고 공지시적일 때, (44)에서처럼 [WH-REL] 자질부착이 적용된다.

(44)



둘째, 매입된 [+WH] 자질을 가진 NP2 는 WH-전치에 의해 내포문의 첫 머리로 이동하고 대명사화 규칙에 의해 *whom* 이 나타난다.

(45)



(46) a. The sun is the source of energy on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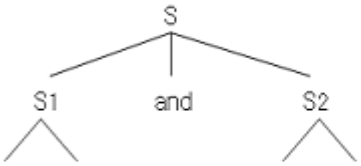
b. *The source of energy on earth which the sun is can not be inexhaustible.

위의 (46)에서 [-DEF, +SPEC]의 자질을 가진 한정사를 포함한 NP 는 영어에서 서술 명사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술 명사는 항상 [+DEF, +SPEC]이나 [-DEF, -SPEC]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b. 비제한적 관계절의 심층구조

Ross(1967), Thompson(1968), Lakoff(1966) 등 여러 학자들은 비제한적 관계절이 접속문과 깊은 관계가 있고, 심층구조에서 접속사 *and* 를 가진 문장이 관계절화 변형을 거쳐 표층구조로 도출되었다고 한다. 다음의 심층 구조를 살펴보자.

(47)



비제한적 관계절은 동격관계절(appositive relative clause)과 계속관계절(continuative relative clause)로 구분된다. 동격관계절은 (33)에서처럼 선행사가 NP 로 주절의 중간이나 끝에 자유롭게 올 수 있다.

(48) a. Tom, who used to play baseball, now has a sedentary job.

b. I had a date with the teacher, who read to me all evening.

계속관계절은 (49)처럼 선행사가 NP 이외인 경우로 반드시 *which* 가 쓰인다.

(49) a. Matthew came late, which bothered Mary.

b. Bill debated in the kindergarten, which Joe did too.

c. Mary is thin, which I will never be.

(49a)에서 *which* 의 선행사는 주절 *Matthew came late* 전체이고, (49b)에서 *which* 의 선행사는 동사구 *debated in the kindergarten* 이며, (49c)에서 *which* 의 선행사는 형용사 *thin* 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제한적 관계절이 접속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

첫째, 주절과 관계절이 종속관계가 아닌 독립적 대등관계라는 점에서 비제한적 관계절이 접속문에서 유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제한적 관계절은 제한기능이 없기 때문에 심층구조에서 머리명사구와 밀접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비제한적 관계절과 접속문은 의미상 서로 유사하다고 본다.

둘째, Ross(1967:240)는 한정사 *no, every, any* 가 들어있는 NP 뒤에는 비제한적 관계절이 올 수 없다는 구절구조제약에 의해 이에 상응하는 접속문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므로 비제한적 관계절과 접속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50) a. *[Any / No / Every] student, who wears mauve socks, is a swinger.

b. *[Any / No / Every] student is a swinger and he wears mauve socks.

위의 (50)은 비제한적 관계절과 접속문 내의 대명사가 한정사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지시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비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속분석은 주절이 의문문이나 명령문인 경우에는 주절에 종속된 동격관계절이 접속구문으로 풀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51) a. Is even Joe, who is wearing mauve socks, a swinger?

b. *Is even Joe a swinger, and he is wearing mauve socks?

c. Is even Joe a swinger? Joe is wearing mauve socks?

(52) a. Tell your sister, who is outside, that supper is ready.

b. *Tell your sister that supper is ready, and she is outside.

c. Tell your sister that supper is ready. Your sister is outside.

접속분석을 따른 (51b)와 (52b)는 비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oss(1967)는 동격관계절 구문은 접속구문이 아닌 독립된 두 문장에서 유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51a)와 (52a)의 동격관계절은 (36c)와 (37c) 같은 독립된 문장에서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Thompson(1971)은 (51a), (52a)가 각각 (51b), (52b)에서 유도된다고 보고, 다만 (51b)와 (52b)가 각각 (51a)와 (52a)로 변형되지 않을 때는 접속사 *and*가 의무적으로 삭제되어 (51c)와 (52c)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비제한적 관계절의 심층구조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 관계절과는 달리 접속문으로부터 관계절이 유도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관계절화 변형

변형문법학자들에 따르면, 관계절 구문은 본래 심층구조에서 독립된 두 문장이 관계화라는 변형과정을 통해 표층구조에서 한 문장으로 도출된 것이다.

a. 제한적 관계절의 변형과정

제한적 관계절의 변형과정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층구조 분석법 중 NP-S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한적 관계절의 변형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매입되는 구조와 그것을 내포

하는 구조는 완전한 문장으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두 문장은 반드시 동일지시적 명사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적용조건을 만족시켜 변형이 일어나면, 매입이 되는 문장이 제한적 관계절이 되고, 그것을 내포하는 문장이 모문이 된다.

다음 예문을 통해 NP-S 의 심층구조로부터 제한적 관계절이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53) a. The boy is angry.
b. You hit the boy.

(53a)와 (53b)는 각각 완전한 문장이고, 동일 지시적 명사구 *boy* 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매입되게 되면, 그 결과는 아래의 (54)와 같다.

(54) The boy [you hit the boy] is angry.

(54)에서 매입된 문장 *you hit the boy* 가 제한적 관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형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모문 머리 명사구와 동일지시적인 매입문의 NP 를 매입문의 문두로 이동시키는 동일 지시적 명사구 전치변형(identical NP preposing transformation)이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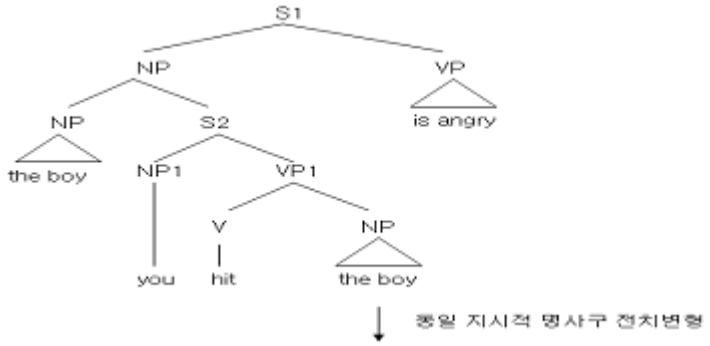
(55) The boy [the boy you hit] is angry.

둘째, 전치된 동일명사구를 대명사로 전환하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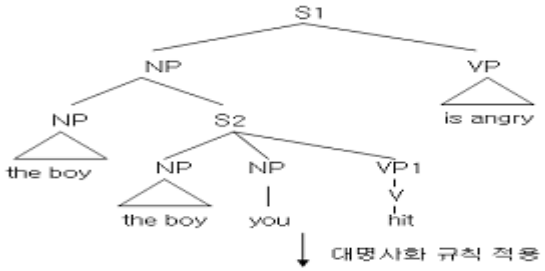
(56) The boy [whom you hit] is angry.

이 과정을 수형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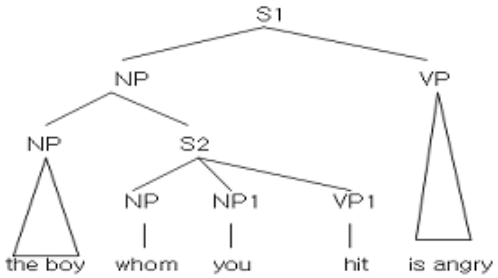
(57) a.



b.



c.



(57a)와 (57b)를 비교해 보면 전치되는 S2 의 동일명사구 *the boy* 는 매입된 S2 마디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구성 요소인 NP1 과 VP1 의 자매부가(sister adjunction)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명사구 전치 변형은 모문 머리 명사구와 동일 지시적인 매입문의 구성 요소인 NP 를 매입된 S2 마디에 자매부가 시키게 된다.

b. 비제한적 관계절의 변형과정

비제한적 관계절의 심층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Jacobs & Rosenbaum(1968) 등은 비제한적 관계절의 심층구조가 접속문에서 유도된다고 보았다. 이 절에서는 Jacobs & Rosenbaum(1970: 289-292)의 관점에서 접속분석법을 토대로 비제한적 관계절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겠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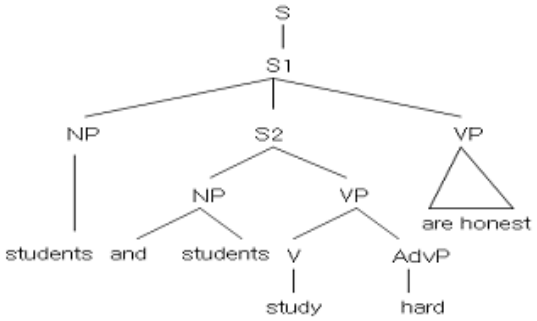
(58) Student, who study hard, are honest.

위의 (58)의 심층구조는 접속분석에 따르면 다음의 (59)와 같다.

(59) <u>Students are honest</u> and <u>students study hard</u>.
S1 S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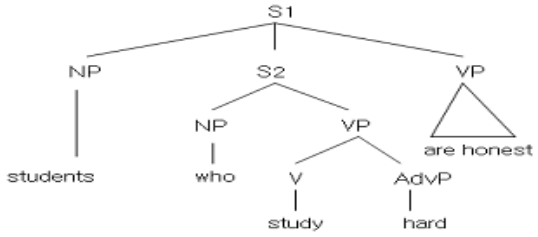
위의 (59)에서 괄호절 형성규칙이 적용되면, *and* 와 문장 S2 를 S2 의 NP 와 일치하는 문장 S1 의 NP 다음에 삽입하면 다음과 같다.

(60)



(59)에서 *and* 가 탈락되고 대명사화 변형이 적용되면 내포된 S2 의 동일주어인 NP *students* 가 *who* 로 대치되어 (61)이 된다.

(61)



위의 (61)에 콤마를 삽입하면 (58)의 비제한적 관계절이 도출되나, 콤마 삽입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한적 관계절로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음을 보자.

(62) a. Students who study hard are honest.

b. Students, who study hard, are honest.

(62a)와 (62b)의 의미는 다르다. (62a)는 학생의 소그룹으로 제한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직하다”이지만, (62b)는 “모든 학생들은 정직하며 그들 모두는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C. 요약

이 장에서는 WH-관계절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계절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형태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또한, 변형문법에서의 심층구조 분석과 변형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점을 선행사와 관계절 사이에 놓이는 콤마(구어에서의 휴지)의 유무로 살펴보았다. 즉, 콤마가 없는 관계절을 제한적 관계절이라 하고 콤마가 있는 관계절을 비제한적 관계절이라고 하였다. 또한, 관계대명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zero 형을 포함한 모든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 that 절과 zero 형을 피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제한적 관계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 할 수 있으나,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경우 비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정성의 정도'에 의해 선행사의 한정사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 또한 살펴보았다. 둘째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 관계절은 한 정적 의미를 가지고 선행사의 핵을 직접 수식하여 명사의 지시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간접적으로 부가 설명해주는, 주절과는 독립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인 머리 명사구의 의미를 제한하는 종속절로 간주할 수 있으나,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주절과 대등한 등위구문의 형태로 결합하여 선행사에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독립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두 관계절의 차이점을 다루어 보았다. 제한적 관계절에서는 관계절 변형규칙이 적용되기 위해 주절과 관계절은 D-구조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존재해야 하고, D-구조에서 주절에 들어있는 선행사 NP 와 동일 지시적 NP 가 관계절 속에도 들어있어야 한다. 반면에,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는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 D-구조에서 주절과 대등한 등위접속절로 보아 등위접속사로 연결하여 두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Radford 는 제한적 관계절에서 생략된 선행사가 머리 명사구를 가지고 있으면 대용형 *one* 은 머리 명사구와 제한적 관계절 전체를 대신하나, 비제한적 관계절에서의 *one* 은 비제한적 관계절을 제외한 머리 명사구만을 대신함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변형문법측면에서 심층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변형과정을 살펴보았다.

Ⅳ. WH-Cleft 구문

분열구문이란 문장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be 동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나눈 구문이다. 분열구문은 다음처럼 주어 *it* 을 가진 형태와 주어에 WH-절이 쓰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63) a. We saw a flying hippo.
b. It was a flying hippo that we saw.
c. What we saw was a flying hippo.

(63a)는 기본 문장이고, 분열구문은 (63b)와 같이 주어 *it* 으로 시작하는 it-분열구문(it-cleft)과 (63c)와 같이 주어에 WH-절이 있는 WH-분열구문(의사분열구문)으로 나뉜다. WH-분열구문은 초기에 단순히 분열구문이라 불렸으나, it-분열구문과 차이점이 존재하여 같은 구문으로 다룰 수 없었다. WH-분열구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64) XP(WH-절) be YP

YP 의 범주는 Higgins(1979: 2)의 예문에서처럼 NP, AP, VP, CP 로 다양하다.

(65) a. What he bought a donkey. (NP)
b. What they are is silly. (AP)
c. What he then did was cut his finger. (VP)
d. What proves that you are wrong is that they weren't even there. (CP)

분열문은 일종의 강조 구문으로 주절의 초점 위치에 강조되어 나오는 요소는 [-V] 속성을 가진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된다.

A. WH-cleft 구문의 특징

WH-분열구문이 it-분열구문과 마찬가지로 be 동사를 중심으로 특정 요소의 강조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what-분열구문이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면에서, 또 분열구문의 용법상 VP 를 강조한다는 독특한 점에서 what-분열구문은 WH-분열구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대접받아 왔다. WH-구문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WH-분열구문의 음성학적 특징은 WH-절이 전제부분이므로 강세를 덜 받고 be 동사 다음에 오는 강조부분이 강세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통사론적 특징으로는, WH-절이 관계절 중 명사절이고, WH-요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며 이 절은 be 동사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e 동사의 보어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WH-분열구문의 WH-절은 종속절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66) a. What he's done is (to) spoil the whole thing.
b. What Samuel did to his suit was (to) ruin it.
c. What she is doing is teaching her son a lesson.

Quirk(1972: 954)는 실제로 이러한 동사의 강조용법은 생산적인 것은 아니며 또 모든 동사가 다 강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Stockwell(1977: 158)은 WH-분열구문은 동작 술어(action predicate)는 강조할 수 있으나 상태 술어(state predicate)는 강조 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67) a. Mary plays the violin.
→What Mary does is play the violin.
b. James likes science.
→*What James does is like science.

(67a)에서 동작 술어 *play the violin* 은 강조될 수 있으나 (67b)의 상태술어 *like science* 는 강조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술어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이기도 하다. 또한, Prince(1978: 885)에 의하면, WH-분열구문의 강조 부분에 오는 NP 가 무생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68) *Who/What leaked it was Tom.

(68)에서처럼 WH-분열구문의 명사는 생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지시물(reference)과 관련된 더 미묘한 문제가 있다.

(69) a. What Jim wants to marry a French.

b.

She (*has / should have) blond hair.

(69)에서 *French* 가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WH-분열구문의 강조요소가 되는 이유는 특정한 실존인물이 아닌 불특정한 어떤 자질의 소유자로 비인격체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화용론적 특징으로, WH-절은 논리적 전제부분이고 be 동사 다음에 강조부분이 온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담화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를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70) A : I can't understand what you mean.

B : What I mean is.....

(71) A : W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B : *What one of my friends said last night was.....

(70)에서 화자 B 의 *what I mean* 은 화자 A 의 대화에 이미 나온 구(old) 정보이고 신(new) 정보는 *is* 다음에 온다. (71A)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담화로 WH-절도 신정보이고 *is* 이하도 신정보이다. (71B)는 강의 시작이라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what-분열구문은 부자연스럽다. 다음을 살펴보자.

(72) a. Hi! My name is Cindy.

b. *Hi! What my name is is Cindy.

(72a)가 정문이고 (72b)가 비문인 이유는 바로 인사라는 즉흥성이 있어서 WH-분열구문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a)의 적절성과 (10b)의 부적절성도 담화상의 개연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B. 종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WH-분열구문의 형식은 XP(WH-절) be YP 로, XP 와 YP 의 의미 관계에 따라 술어적(predicational) WH-분열구문과 명시적(specificational) WH-분열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 술어적 WH-분열구문에서 YP 는 XP 의 특성을 서술해 주는 반면, 명시적 WH-분열구문에서는 YP 가 XP 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거나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Gundel(1977)이 제시한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자.

(73) a. What Susan is is worthwhile. (predicational)

b. What John read was novels. (specificational)

c. What I bought is a German Shepherd and a St. Bernard. (ambiguity)

(73a)는 *Susan* 이 있는데, 그녀 자신이 아닌 그녀가 처한 위치나 직업 등이 가치가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주는 술어적 WH-분열구문이다. 반면에, (73b)는 *John*

이 읽은 것이 다름 아닌 소설로, YP 가 XP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명시적 WH-분열구문이다.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는 (73c)를 살펴보자. 이를 술어적 구문으로 보면, 화자가 산 개는 독일산 세퍼드와 세인트 버나드 종의 특징을 지닌 혼혈종이 된다. 그러나 명시적 구문으로 보면, 화자가 산 개는 독일산 세퍼드와 세인트 버나드 각각 한 마리씩 모두 두 마리임을 알 수 있다.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명시적 WH-분열구문이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 구조적 속성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명시적 WH-분열구문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구조적 속성으로 일치 효과(agreement effects), 추출 제약(extraction restrictions), 그리고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을 다루어 보겠다.

1. 일치 효과

일치 효과란 동사의 시제, 수, 양상 등에 의해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명시적 WH-분열구문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Den Dikken(2001: 23)이 제시한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74) a. What you have bought <u>is</u> fake jewels.
b. What you have bought <u>are</u> fake jewels.

(75) a. What he was do<u>ing</u> was work<u>ing</u> in the garden.
b. *What he was do<u>ing</u> was work in the garden.
c. *What he did was work<u>ing</u> in the garden.

명시적 WH-분열구문인 (74a)는 계사 앞의 요소인 주어와 계사의 수가 일치하는 데 반하여, 술어적 WH-분열구문인 (74b)는 계사 뒤의 요소와 계사의 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상적 일치에서 (75a)는 WH-절의 동사가 과거 진행형으로 전체 절의 동사도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문이다. 하지만, WH-절의 동사가 과거 진행형인데 전체 절의 동사가 단순 현재형인 (75b)는 비문이다. 마찬가지로, WH-절의 동사가 단순 과거형인데 전체 절의 동사가 과거 진행형인 (75c)도 비문이다.

2. 추출 제약

추출이란 어떠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어 추출은 술어적 WH-분열구문에서나 명시적 WH-분열구문에서는 용인되지 않는다. 술어적 WH-분열구문의 경우 계사 뒤의 요소인 NP 를 추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요소 또한 추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명시적 WH-분열구문은 계사 뒤의 요소나 그의 일부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Den Dikken(2001: 25)이 제시한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자.

(76) a. I believe that the cause of the riot was a big surprise to us all.
b. How big a surprise do you believe what the cause of the riot was *ec*?
c. Who do you believe that what the cause of the riot was the biggest surprise to *ec*?
d. *What do you believe that what the cause of *ec* was a big surprise to us all?

(77) a. I believe that what caused the riot was a picture of the wall.
b. *What do you believe that what caused the riot was *ec*?
c. *What do you believe that what caused the riot was a picture of *ec*?

d. *What do you believe that what caused *ec* was a picture of the wall?

술어적 WH-분열구문인 (76a)에서 계사 뒤의 요소가 추출된 (76b)와 그 일부가 추출된 (76c) 모두 가능하나, 명시적 WH-분열구문인 (77a)에서 계사 뒤의 요소가 추출된 (77b)와 그 일부가 추출된 (77c)는 모두 비문이 된다. 또한 주어 추출 금지 제약에 의해 주어가 추출된 (76d)와 (77d)는 모두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3.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

상승 제약에 의해, 술어적 WH-분열구문의 WH-절은 주어로 상승될 수 있으나 명시적 WH-분열구문의 WH-절은 상승할 수 없음을 Partee(1986)가 제시한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78) a. What John is seems to be a danger to him.
b. *What John is seems to be a danger to himself.

또한, 주어 동사 도치구문 제약에 의해서 술어적 WH-분열구문은 도치가 가능하나 명시적 WH-분열구문은 그렇지 않음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9) a. Is what John is a danger to him?
b. *Is what John is a danger to himself?

이상에서, WH-분열구문의 두 유형인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명시적 WH-분열구문의 차이점을 구조적 속성인 일치 효과, 추출 제약, 그리고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을 통해 살펴보았다.

D. 화용적 의미속성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명시적 WH-분열구문의 차이점을 화용적 의미속성 중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배타성(exhustivity)에 의해 다루어 보겠다.

1. 정보구조

정보구조란 어떠한 정보를 제시할 때 일반 문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80) a. Tom read the book.
b. What Tom read was the book.

(80a)는 기본문장으로 "Tom 이 그 책을 읽었다"는 뜻이며, *Tom* 이 그 책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읽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반해, (80b)는 WH-분열구문으로, "Tom 이 어떤 것을 읽었는데 읽은 어떤 것은 바로 그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시적 WH -분열구문인 (80b)에서는 *Tom* 이 그 책 이외에 다른 책을 읽었을 가능성은 배제되어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달리 계사 뒤의 요소가 초점이 되고 새 정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Blom & Daalder(1977)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81) a. 명시적 계사문에서 초점요소가 YP 에 포함된다.
b. 술어적 계사문에서 초점요소가 YP 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타성

배타성 또한 명시적 WH-분열구문만이 가지는 화용적 의미특성으로, 이는 **not only, mainly, especially, primarily** 와 같은 특정 표현에 의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함의적이다. 다음을 통해 알아보자.

(82) a. What Jim offered Mary was a wine.

b. What Jim offered Mary was a not only wine.

명시적 WH-분열구문인 (82a)는 *Jim* 이 *Mary* 에게 준 것은 *wine* 뿐이므로 그 외의 다른 것은 배제된다. 그러나 (82b)에서는 *Jim* 이 *Mary* 에게 준 것은 *wine*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타성 함의가 사라져버린다.

E. 요약

하나의 독립된 구문으로 구문 자체적으로 구조 속성과 의미 속성을 지닌 WH-분열구문 대한 것으로, 특징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다음, WH-분열구문의 두 유형인 명시적 WH-분열구문과 술어적 WH-구문의 차이점을 구조적 속성인 일치 효과, 추출 제약,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 그리고 화용적 의미속성인 정보구조와 배타성으로 살펴보았다. 일치 효과란 동사의 시제, 수, 양상 등에 의해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명시적 WH-분열구문은 계사 앞의 요소인 주어와 계사의 수가 일치하나, 술어적 WH-분열구문은 계사 뒤의 요소와 계사의 수가 일치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추출 제약에 의해 명시적 WH-분열구문은 계사 뒤의 요소와 그 요소의 일부를 추출하지 못하나, 술어적 WH-분열구문은 추출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명시적 WH-분열구문과 술어적 WH-분열구문 모두 주어 추출은 불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구조적 속성 중 또 하나인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에 의해, 술어적 WH-분열구문에서만 상승과 도치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WH-분열구문의 중요한 화용적 의미속성 중 하나인 정보구조에 의해, 명시적 WH-분열구문은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달리 계사 뒤의 요소가 초점이 되고 새 정보가 됨을 알아보았다. Blom & Daalder (1977)는 명시적 계사문에서 초점요소가 YP 에 포함되나, 술어적 계사문에서 초점요소는 YP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배타성은 명시적 WH-분열구문만이 가지는 성질로, 이는 함의적임을 알아 보았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WH-구문들 즉, WH-의문문, WH-관계절문, 그리고 WH-분열구문 즉, 의사분열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모두는 저마다 일정한 특징과 규칙을 지니고 있다.

Ⅱ장에서는 한국어와 구조가 다른 영어의 WH-의문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WH-의문문의 특징을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WH-의문문은 통사적인 면에서 하위범주 화와 공백 논증과 관련이 있었다. 하위 범주화란 한 범주에 속하는 어휘라 할지라도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서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동사 *put* 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통사적인 특징인 공백 논증을 다루어 보았다. '공백'이란 WH-구가 WH-이동에 의해 문두로 이동되는 경우 그 요소가 이동한 자리인 빈 NP 자리를 뜻한다. 그래서 어떤 요소가 이동에 의해 문두로 나가는 경우 원래 공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Ⅲ장에서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소인 WH-관계절문에 대한 것으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점을 형태적.통사적.의미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종속관계절을 변형문법 측면에서 심층 분석을 하였고, 변형 과정을 다루어 보았다. 첫째로,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점을 선행사와 관계절 사이에 놓이는 콤마의 유무로 살펴보았다. 또한, 관계대명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zero 형을 포함한 모든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관계대명사 that 절과 zero 형을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정성의 정도'에 의해 선행사의 한정사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 또한 살펴보았다. 둘째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 관계절은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선행사의 핵을 직접 수식하여 명사의 지시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간접적으로 부가 설명해주는, 주절과는 독립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두 관계절의 차이점을 다루었다. 제한적 관계절

에서는 관계절 변형규칙이 적용되기 위해 주절과 관계절은 D-구조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존재해야 하고, D-구조에서 주절에 들어있는 선행사 NP 와 동일지시적 NP 가 관계절 속에도 들어있어야 한다. 반면에,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는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 D-구조에서 주절과 대등한 등위접속절로 보아 등위접속사로 연결하여 두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Radford 는 제한적 관계절에서 생략된 선행사가 머리 명사구를 가지고 있으면 대용형 *one* 은 머리 명사구와 제한적 관계절 전체를 대신하나, 비제한적 관계절에서의 *one* 은 비제한적 관계절을 제외한 머리 명사구만을 대신함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구문인 WH-분열구문을 다루어 보았다. 분열구문의 종류 중 하나인 WH-분열구문에 대한 것으로,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다음, WH-분열구문의 두 유형인 명시적 WH-분열구문과 술어적 WH-분열구문을 다루었다. 이들의 차이점을 구조적 속성인 일치 효과, 추출 제약,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 그리고 화용적 의미속성인 정보구조와 배타성으로 살펴보았다. 구조적 속성 중에서 일치 효과란 동사의 시제, 수, 양상 등에 의해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명시적 WH-분열구문은 계사 앞의 요소인 주어와 계사의 수가 일치하는 데 반해, 술어적 WH-분열구문은 계사 뒤의 요소와 계사의 수가 일치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추출 제약에 의해 명시적 WH-분열구문은 계사 뒤의 요소와 그 요소의 일부를 추출하지 못하나, 술어적 WH-분열구문은 그렇지 않음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명시적 WH-분열구문과 술어적 WH-분열구문 모두 주어 추출은 불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구조적 속성 중 또 하나인 상승과 도치구문 제약에 의해서, 술어적 WH-분열구문에서만 상승과 도치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WH-분열구문의 중요한 화용적 의미속성 중 하나인 정보구조에 의해, 명시적 WH-분열구문은 술어적 WH-분열구문과 달리 계사 뒤의 요소가 초점이 되고 새 정보가 됨을 알아보았다. 또 다른 화용적 의미속성인 배타성은 명시적 WH-분열구문만이 가지는 성질로, 이는 함의적임을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WH-구문의 세 가지 유형인 WH-의문문, WH-관계절문, 그리고 WH-분열구문을 다루어 보았다.

REFERENCES

강지연. “영어관계절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06.

김성재. “영어의 Wh-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2001.

김유신. “영어 분열구문에 대한 제약기반 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9.

서성북. “영어관계절 변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1998.

송윤희. “영어 의사분열구문의 제약기반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5.

신인철. 『영어 통사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3.

우윤식. 『현대 통사론의 기초』. 부산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8.

윤만근. 『영어통사론 Ⅰ』. 도서출판 경진문화사, 2000.

윤순영. “WH-이동규칙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1987.

장경기. “영어분열문의 본질.”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19, no.2 (1988) pp. 29-48.

Baker, C. L. *English Syntax*. MIT Press, 1989.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1965.

Curme, Geroge, O. *Syntax*. D. C. Heath and Company, Boston, 1931.

Den Dikken, M. Specificational Copular Sentences and Pseudo-clefts. *The Syntax Companion*. Everaert & Riemsdijk(eds), 2001.

Gundel, J. K. Where do Cleft-sentences Come from? *Language* 53. 1977, pp. 543~559.

Higgins, F. R. *The Pseudo-cleft Constructions in English.* Gerland Press, 1979.

Huddleston, Rodney and Pullum, Geoffrey K.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Jacobs, R. A. and Rosenbaum, P. S.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 Bleisdell Publishing Company, 1968.

_____ 1970.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Binn & Co., 1970.

Katz, J. J. and Postal, P. M.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4.

Lakoff, G. and Ross, J. R. *A Criterion for Verb Phrase Constituency.* Report NSF 17, Harvard University Computation Laboratory, Cambridge, Mass, 1966.

McCawley, James D. *Everything that Linguists Have Always Wanted to Know about Logic but Were Shamed to As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artee, B. Ambiguous Pseudo-cleft with Unambiguous BE. *NELS* 16, pp. 354~366, 1986.

Perlmutter, D. M. and Soames, S. *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rince, E. F. A Comparison of WH-Clefts and it-Clefts in Discourse. *Language* 54, 4, 1978.

Quirk et al.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1972.

_____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1985.

Radford, Andrew.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 Cambridge UP, 1981.

Ross, J. R.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 D. Dissertation, MIT. Bloomington, Indiana :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967.

Smith, C. S. "Determiners and Relative Clauses in a Genit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40*, 1964, pp. 37~52.

_____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9.

Stageberg, Norman C.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1.

Stockwell, R. P., Schachter, P., and B. Partee.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s of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_____ *Foundations of Syntactic Thoery.* New Jersey: Prentice Hall, 1973.

Thompson, S. A. 1968. Relative Clauses and Conjunction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1.